http://doi.org/ 10.17938/tjkdat.2026..88.413
© 2026. 송소라. All Rights Reserved.

세습예인의 삶과 예술에 대한 실증적 재고찰

- 이경엽, 『무당과 예인』, 역사공간, 2025.

송소라*

〈차례〉

1. 들어가며
2. 세습무계의 삶과 그들을 향한 사회적 시선, 그 대응에 관한 새로운 접근
3. 세습예인의 횡단과 전통 재구성의 실증적 논의
4. 나가며

국문 초록

이 글은 이경엽의 『무당과 예인』(역사공간, 2025)를 검토하면서, 저자가 세습무계와 세습예인을 한국 전통예술사의 중심 문제로 다시 호명한 의의를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함께 남는 과제를 생각해 본 글이다. 특히 본고는 『무당과 예인』에서 두 가지에 주목하였다. 첫째, 이 책이 무당과 세습무계를 굿의 담당자나 천대받은 집단이라는 통념적 범주에 가두지 않고, 신분 인식, 공적 조직, 사회적 시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양상까지 포괄하는 다층적 존재로 복원했다는 점이다. 둘째, 세습예인의 근대 경험, 예인 네트워크, 종합적 예능에 관한 분석을 통해, 전통과 문화재가 고정된 원형의 보존물이 아니라 세습예인의 실천 속에서 재구성되어 온 역사적 산물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다만 이 책이 제시한 사례들은 대체로 특정 지역과 가계, 그리고 자료가 풍부한 인물들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그 논의를 어디까지 일반화할 수 있는지 후속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박진명 일가, 여수 악공청, 조옹석 등의 사례가 조선 후기와 근현대 세습무계 일반의 양상을 어느 정도 대표할 수 있는지, 또 강준섭과 장월중선 같은 사례가 세습예인 일반의 조건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지역별·시기별 비교와 덜 알려진 사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향후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논의가 오늘날 무형유산 제도와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 전승 문제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후속 과제로 남는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세습예인의 삶과 예술 세계를 입체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지평을 크게 넓혔다. 무속 연구자는 물론 전통예술과 역사민속학 전반에 관심을 둔 연구자라면 반드시 검토할 만한 저작이라 생각한다.

www.kci.go.kr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주제어: 무당과 예인, 무형유산, 세습무계, 세습예인, 신청, 이경엽, 재인청, 한국전통공연예술

1. 들어가며

한국에서 무당은 매우 특별한 존재다. 무교라는 종교의 사제자이자 제의로서 굿을 연행할 수 있는 예인이기 때문이다. 무속은 기층의 종교로 오랜 시간 한국에 뿌리를 내리며 존재했고 외래 종교가 유입되어도 생명력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무당과 굿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매우 양가적이다. 경외와 천시. 맹신과 불신. 그렇다면 이러한 시선은 왜 생겼을까. 그리고 실제로 무당들은 어떤 존재일까.

그간 무속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다. 특히 '굿'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방면으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무당'에 초점을 맞춘 본격 연구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1] 무엇보다 예인으로서 무당의 가계와 삶, 활동에 대한 논의는 개별적으로 진행된 바 있으나[2],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연구서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경엽 교수의 『무당과 예인』은 세습무계 무당에 주목하여 그들의 가

1) 홍태한은 그동안 한국 무속 연구가 '굿' 중심으로 이루어져 굿의 구조, 연행 방식, 구성 요소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쌓였다고 하였다. 반면 막상 굿을 오랫동안 주재해 온 무당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많지 않았다고 했다(홍태한, 「전통예술의 계승자, 세습 예인에 대한 온전한 자리매김 – 이경엽 지음, 〈무당과 예인- 역사공간, 2025년 간행. 544쪽〉 서평」, 『남도민속연구』 51, 남도민속학회, 2025, 420면).

2) 대표적으로 전북, 광주, 호남 지역 등에 주목하여 세습무의 삶과 활동을 다룬 연구(이영금, 「전북지역 세습무의 삶과 무업」, 『한국무속학』 12, 한국무속학회, 2006; 박미경, 「진도 세습무 박씨 계보와 인물연구」, 『한국음악연구』 41, 한국국악학회, 2007; 정대하, 「광주의 세습무 활동 변화 양상」, 『한국무속학』 16, 한국무속학회, 2008; 이영금, 「호남 세습무계의 횡단적 관계망과 그 문화적 영토의 종합성」, 『비교민속학』 50, 비교민속학회, 2013 등 참고), 세습무계 연희가 가지는 특징과 예술성을 고찰한 연구(송기태, 「세습무계집단의 풍물굿 연행과 지역 풍물굿의 전승」, 『남도민속연구』 15, 남도민속학회, 2007; 목진호, 「세습무 굿음악의 지역특성 연구」, 『한국무속학』 33, 한국무속학회, 2016; 조성제, 「정읍지역 세습무 음악의 성격과 공연학적 고찰」, 『남도민속연구』 50, 남도민속학회, 2025 등)을 소개해 볼 수 있다.

계와 학습, 나아가 이들의 예능이 전통예술과 조우하는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와 자료를 토대로 종합한 연구서이다. 그 과정에서 세습무계를 향한 사회적 시선 역시 놓치지 않고 포착함으로써 한국의 세습예인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이 책은 총 4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저자는 1부에서 세습무계와 무당의 존재를 역사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검토하며 무계 사람들의 가계와 삶, 경제활동, 그리고 세습예인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을 세밀하게 살폈다. 2부에서는 세습무계와 연희 집단의 조직적 기반을, 재인청을 통해 살피고, 광대놀음의 전통과 오늘날의 재현 사례도 검토했다. 이어 3부에서는 앞선 토대 위에서 세습예인들이 근대 이후 어떤 예술 활동을 전개하였는지, 그것이 전통예술의 계승·변주·확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강준섭 명인의 사례, 영무장 세습무계 사례 등을 통해 밝힌다. 마지막 4부에서는 능주 세습무계를 중심으로 예인 네트워크의 형성과 의미를 탐색하고, 진도의 박씨 가계를 통해 예인들의 다채로운 대외 활동과 그것이 지역 예술의 전승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조사했다. 더불어 장월중선 가계를 사례로 세습예인들이 종합적으로 기예를 습득하는 원리와 과정을 소개하고, 이의 의미를 제고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두 가지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하나는 세습무계를 전면에 두고 그들의 가계와 삶, 경제활동, 나아가 그들을 향한 사회적 시선 및 이에 관한 예인들의 대응을 상세히 드러낸 지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습예인들이 무업에 머물지 않고 여러 예술 영역을 횡단하며 지역 예술과 교섭하고, 그 과정에서 전통예술의 계승과 변주를 이끌어 온 양상을 선명하게 제시한 부분이다. 필자는 해당 부분을 중심으로 내용과 의의를 정리하고 이로부터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과 남겨진 과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www.kci.go.kr

2. 세습무계의 삶과 그들을 향한 사회적 시선, 그 대응에 관한 새로운 접근

이 책의 1부는 한국 무속 연구의 시선을 '굿'에서 '무당', 나아가 '세습무계'로 맞춘다. 필자는 1부에서 특히 두 가지를 인상 깊게 읽었는데 하나는 무당의 신분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재고케 하는 부분이다. 저자는 무당이 천인 신분이고, 이로 인해 이들이 천대를 받았다는 기존 관념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경상도 단성현의 무부 박진명 일가의 신분과 직역을 근거로 노비가 양녀와 혼인하는 사례가 많았고, 그에 따라 신분 역시 달라졌음을 제시하였다. 16~17세기 두 차례의 전란을 겪으며 요동치는 신분제하에서 양천교혼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무당의 신분 역시 단일하게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무당을 천하게 여기는 관념이 나왔을까.

이에 대해 저자는 "양반 위주의 신분제를 통해 우열을 가르는 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고, 천인의 범주를 무의식적으로 고정화했던 고정관념"이 이유가 되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유교 중심의 지배 이념이 무속과 무당을 근절의 대상으로 낙인찍어 배척했던 사정, 무속을 비롯한 전래의 종교적 전통을 음사로 규정하고 무당을 근절시키고자 했던 정책, 서양의 외래 종교가 유입된 후 퍼진 적대적 관념 등이 주요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당의 신분보다도 '역할'에 대한 차별의식, 이로부터 그들을 하대하는 관행이 일상화되었다고 진단한다. 결국 무당을 향한 하대는 단순히 천민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맡아온 역할과 이를 둘러싼 지배적 인식이 결합한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재인·광대 조직을 다루는 부분에서 더욱 선명해진다. 저자는 재인청이나 신청을 단순한 민간 예능 조직으로 보지 않고, 예능 전수와 권익 보호, 대외적 위상 과시, 그리고 관의 공적 역할 수행과도 연

www.kci.go.kr

결된 조직으로 파악한다. 여수 악공청 사례는 그 점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저자에 따르면, 악공청은 관의 공적 역할을 이어받은 공간이었고, 방종선 일가는 그 안에서 대방 역할과 제의 운영을 담당하며 전통을 이어갔다. 대방 자리는 '벼슬'처럼 받아들여졌고, 선생안에 이름이 오른다는 사실 자체가 집안의 자부심이 되었다. 그런데 저자는 곧바로 그 자부심의 이면을 드러낸다. 같은 선생안에서 후손들이 선조의 이름을 창피하게 여겨 지우려 했다는 증언이 등장하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명예의 기록이던 것이 다른 한편에서는 감추고 싶은 흔적이 되었다는 사실은 세습예인을 향한 사회적 시선의 폭력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더욱이 저자는 이 사례를 통해 단지 차별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 차별이 후손들의 감정과 기억 속에서 어떻게 내면화되었는지까지 포착한다.

한편, 저자는 사회적 차별에 대한 세습예인의 대응을 하나의 방향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족보 편입을 통해 기존 사회질서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어떤 이들은 집안 내력을 감추거나 외지로 떠나며 거리를 두려 했다. 또 어떤 이들은 해방과 전쟁의 격변기 속에서 아예 다른 체제를 선택하기도 했다. 박동실 일행이 조선고전음악연구회를 조직하고 새로운 공연 양식을 모색한 사례는, 세습예인이 단지 과거의 질서에 묶여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그 질서를 벗어나 새로운 예술적·사회적 위치를 찾으려 했던 주체였음을 보여준다.

그와 함께 저자는 세습무의 내력을 오히려 자긍의 근거로 전환한 경우도 놓치지 않는다. 박병천이 무속을 자신의 예술적 근원으로 공공연히 말하고, 정철호가 스스로를 세습예인이라 밝히며 뿌리를 드러낸 사례가 그러하다. 조웅석의 경우는 더 인상적이다. 그는 부친 조계남이 남긴 제사 기록을 통해 집안의 전승 계보를 확인하고, 그 무업의 전통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신을 떠받치는 기반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후 능주씻김굿의 전승과 연구에 참여하고, 작사·작곡 등 새로운 예술 활동으로 나아간 그의 이력은 무계의 후손이 반드시 전통을 숨기거나 단절하는 방식으로

www.kci.go.kr

만 살아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정만조가 남긴 <가객 박덕인에게 주다> 또한 이 장의 의미를 넓혀 준다. 세습예인이 대체로 차별의 대상이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뛰어난 예능을 지닌 인물은 찬탄과 존중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물론 그 때문에 이 사례는 더 중요하다. 예외적인 찬사가 가능했다는 사실은, 역으로 그러한 존중이 얼마나 드문 것이었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세습무계를 향한 환대와 하대가 동시에 존재했던 이중적 시선, 바로 그것이 이 책 1부가 실증적으로 밝혀낸 한국 사회의 풍경일 것이다.

이처럼 『무당과 예인』은 무당과 세습무계를 더 이상 '굿의 담당자'라는 기능적 범주나 '천대받은 집단'이라는 관념적 범주에 가두지 않고, 신분 인식, 직업 구조, 공적 조직, 감정의 역사까지 포괄하는 다층적 존재로 복원한다. 이는 무속 연구의 시선을 의례와 연행 중심에서 사람과 가계, 나아가 세습무계의 생활세계로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이다.

또한, 저자는 세습예인을 둘러싼 문제를 차별의 사실만이 아니라 그 차별이 어떻게 내면화되고, 또 어떻게 회피·은폐·편입·자긍·계승 같은 상이한 방식의 대응을 낳았는지까지 보여준다. 예인들의 심리와 대응방식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유형화한 것은 이들과 사회가 관계 맺는 방식의 다양함을 강조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접근은 세습예인을 수동적 희생자나 낭만적 전승자로 그리지 않고, 사회적 억압과 예술적 자의식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해 온 역사적 주체로 읽게 한다.

물론 더 논의해 볼 지점도 있다. 먼저 박진명 일가, 여수 악공청, 조웅석 등의 사례는 매우 설득력 있지만, 그만큼 특정 지역과 가계의 밀도 높은 자료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들이 어느 정도까지 조선 후기와 근현대 세습무계 일반의 양상을 대표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역별·시기별 비교가 뒤따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책이 밝힌 환대와 하대의 이중적 시선은 매우 유효한 개념이지만, 그 시선이 국가 권력의 차원, 지역 사회의 일상적 관행, 가족 내부의 기억과 침묵, 근대 이후 종교·문화

www.kci.go.kr

담론의 영향 가운데 어디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더 세분하여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이 책은 세습무계를 둘러싼 사회적 풍경을 선명하게 복원하는 데 성공했지만, 바로 그 성과 덕분에 이제는 차별의 구조와 대응의 양식을 보다 비교사적이고 미시적으로 확장해 볼 과제가 남은 것이다.

3. 세습예인의 횡단과 전통의 재구성에 관한 실증적 논의

앞선 부분이 세습무계와 세습예인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과 삶의 조건을 복원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면, 3부와 4부는 그들이 실제로 어떤 예술 세계를 형성했고 또 그것이 오늘날 전통과 문화재의 성립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된다.

본고는 해당 부분에서 두 가지를 주목하였다. 하나는 세습예인이 단순히 전통을 물려받은 존재가 아니라, 전통의 현재적 모습과 문화재의 성립 과정에까지 실질적으로 관여한 행위자라는 점이다.

저자는 강준섭과 <진도다시래기>의 재구성 과정을 통해 이를 보여준다. 즉, 강준섭의 유랑극단 및 포장극단 경험이 다시래기 복원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다시래기의 문화재 정착이 단순히 오래된 원형의 보존이 아니라, 고로들의 기억과 복원 과정의 선택, 그리고 근대 공연 경험을 지닌 세습예인의 감각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내용은 '전통'이나 '문화재'를 옛것을 보존한 형태로만 이해하는 통념을 교정하게 만든다. 저자가 제시한 영무장 권역의 사례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영광·고창·장성 일대의 예인들은 권역 내부의 교류와 대외 활동을 통해 예술 전통을 형성하고 갱신해 왔는데, 저자는 이를 통해 지역 전통 또한 고정된 토착성의 결과가 아니라 이동과 교섭, 그리고 예인들의 실천 속에서 구성된 것임을 보여준다. 곧 전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www.kci.go.kr

때로는 세습예인의 경험과 선택에 의해 다시 짜이는 것이었다.

더불어, 무업과 예능, 가계와 권역, 전승과 대외 활동이 하나의 종합적 예술 생태를 이루고 있었다는 저자의 주장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세습예인들이 종합 예술인으로서 다방면에 재주가 있다는 것은 몇몇 예인을 통해 알려진 바이나, 저자는 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논증한다. 이를테면 능주 사례에서 신청은 단지 무업의 공간이 아니라 예능 학습과 전수, 관아 행사 참여, 예인 교류의 거점으로 기능했다. 조도화의 구술을 통해 드러나듯 신청에서는 판소리, 가야금, 피리, 줄타기, 춤 등이 함께 익혀졌고, 이는 무업과 예능이 별개의 장르로 분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능주의 조씨 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예인 네트워크는 통혼과 사승, 지역 간 교류를 매개로 전승을 이어갔고, 그러한 관계망 속에서 판소리와 기악, 줄타기, 창극 활동이 서로 맞물렸음을 잘 보여준다.

장월중선의 사례 또한 이 점을 더욱 선명하게 한다. 그는 판소리, 가야금, 거문고, 춤, 범패와 작법, 국극과 창극 작곡, 나아가 아쟁산조의 창안에까지 관여한 인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비범함 자체보다도 그러한 횡단이 가능했던 전승 환경이다. 즉 세습예인의 세계에서는 여러 예능을 두루 익히고, 그것을 다시 다른 분야의 창작과 공연으로 연결하는 일이 예외적인 일탈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 특징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저자는 세습예인을 한국 전통예술의 주변부 인물이 아니라, 전통의 형성과 변형, 재구성과 확장의 중심 행위자로 다시 위치시킨다. 더 나아가 오늘날 무형유산 제도가 종목별 분화와 원형 보존의 논리에 기대고 있는 반면, 실제 전통예술의 현장에서는 무업과 예능, 지역과 권역, 개인의 대외 활동이 끊임없이 교차해 왔음을 설득력 있게 말한다.

저자의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향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강준섭과 장월중선은 이 책의 논지를 드러내는 데 매우 효과적인 사례였다. 하지만 그만큼 자료가 풍부하고 활동 반경과 예술적

www.kci.go.kr

성취가 두드러지는 인물들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이후 이름이 널리 알려진 예인들뿐 아니라 지역 내부에 머물렀던 예인들, 기록이 충분히 남지 않은 예인들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책이 전통의 재구성과 세습예인의 종합적 예능, 그리고 예인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양상이 오늘날 어떤 방식으로 지속되고 변형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특히 무형유산 제도, 공연장 체계, 지역 축제, 교육 환경은 물론, 최근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세습예인의 예술 세계가 어떻게 새롭게 적응하고 재맥락화되고 있는지는 후속 논의로 이어질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4. 나오며

이경엽의 『무당과 예인』은 세습무계와 세습예인을 둘러싼 삶의 조건, 사회적 시선과 대응, 재인청과 신청 같은 조직적 기반, 세습예인이 근대 공연문화와 접촉하는 양상과 네트워크까지, 한국 전통예술사에서 세습무계의 존재를 입체적으로 복원한 연구서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상당한 정보와 분석을 담고 있는 책의 내용 가운데 ① 무당과 세습예인을 둘러싼 신분 인식, 그들을 향한 사회적 시선과 이에 대한 세습예인들의 대응 양상, ② 세습예인의 근대 경험, 예인 네트워크, 종합적 예능을 통해 오늘날 전통예술의 모습과 문화재의 성립 과정을 검토한 부분에 집중하여 내용을 검토하고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았다.

체계적인 논리와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습예인의 삶과 예술 세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며 연구의 지평을 확장해 준 저자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후학으로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예인으로서 무당의 삶이 정당하게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필자 역시 연구에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

www.kci.go.kr

Abstract

An Empirical Reconsidering the Lives and Art of Hereditary Performers: A Review of Lee Gyeong-yeop's *Mudang and Performers* (Yeoksagonggan, 2025)

Song Sora

This article reviews Lee Gyeong-yeop's *Mudang and Performers* (Yeoksagonggan, 2025), examining the significance of the author's effort to reposition hereditary mudang communities and hereditary performers as central subjects in the history of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while also considering the issues that remain for further study. In particular, this review focuses on two points. First, the book does not confine mudang and hereditary mudang communities to the conventional categories of ritual specialists or socially despised groups; rather, it reconstructs them as multilayered historical actors by taking into account perceptions of status, public organizations, social attitudes, and their diverse responses to such conditions. Second, through its analysis of the modern experiences of hereditary performers, performer networks, and their composite artistic practices, the book persuasively demonstrates that tradition and cultural heritage are not fixed survivals of an original form, but historical products continually reconstituted through the practices of hereditary performers.

At the same time, the book's major cases largely rely on particular regions, lineages, and figures for whom relatively rich materials are available, which means that the extent to which its arguments may be generalized still requires further examination. For example, it remains necessary to ask to what degree cases such as the family of Bak Jin-myeong,

www.kci.go.kr

the Yeosu Akgongcheong, and Jo Ung-seok represent the broader conditions of hereditary mudang communities in late Joseon and modern Korea, and to what extent striking figures such as Gang Jun-seop and Jang Wol-jung-seon can stand for hereditary performers in general. These questions call for regional and chronological comparison, as well as further investigation of lesser-known figures. In addition, an important task for future research will be to explore how these discussions may be extended to the contemporary transmission of tradition within the systems of intangible heritage and the environment of digital media.

Even so, this book deserves high praise for broadening the horizon of related scholarship by illuminating the lives and artistic worlds of hereditary performers in a multidimensional way. It is a work that merits close attention not only from scholars of Korean shamanism but also from researchers interested i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nd historical folklore more broadly.

Keywords: Hereditary mudang communities, Hereditary performers, Intangible heritage, Jaeincheong,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Lee Gyeong-yeop, arts, Mudang and Performers, Sincheong

www.kci.go.kr